



IBKS 탐방 노트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해성디에스]

전기차 캐즘과 DDR4 단종, 극복 가능한 문제

Leadframe 전문가 존재감 지속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패키지 전문 기업으로, 신뢰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동차용 반도체 Leadframe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률 증가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장화 가속으로 동사의 자동차산업용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자동차용 LF(LeadFrame)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동사의 실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점차 IT솔루션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또한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LF의 역할은 앞으로도 안정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LF 매출은 동사 실적의 근간이며 안정성이 높지만, 산업 특성상 가파른 성장은 제한적이다. LF사업은 급격한 실적 성장 보다는 안정감 있는 실적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 기판 문제없이 성장 중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패키지 기판 사업은 LF사업보다 비중은 작지만, 추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이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XMT와 같은 IDM(종합반도체기업) 업체와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D램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DDR 3,4,5, GDDR6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IDM 기업들의 DDR4 단종으로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활발해져 단발적인 DDR4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DDR4의 예상치 못한 주문 증가와 주요 고객사용 DDR5 물량 확대가 2분기에 확인될 것으로 보여, 2Q25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Q25 컨센서스 매출액 1,442억원, 영업이익 67억원

메모리 산업 방향에 예의주시 할 때

LF 사업은 뚜렷한 국내 경쟁자 없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서의 변화가 주가를 움직일 주요 요인이라 판단된다.

동사는 창원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신 공장을 건립 중이며, 현재까지 3,000억 원이 집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창원 신공장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패키지 기판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